

ARPC

모 범 예 배 안 내

DIRECTORY OF PUBLIC WORSHIP



(2007년 총회 승인)

사 용 승 인

특별히 언급 된 부분 외, 모든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인용 되었다.

ESC 라고 표시 된 성경부분은 “Crossway Bibles”에서 출판한 2001년 판 “English Standard Version”(Crossway 2001에서 인용되었으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음.

대문자로 된 주석들

6개의 문서(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모범예배)로 이루어진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의 “헌법” 은 같은 시간,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정치”와 “권징조례”이다. 그래서 ARPC 의 "The Standards" 안에 있는 다른 문서로부터 인용한 부분들이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므로, 그 배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약 어

COF =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DPW = 모범예배 지침 (Directory of Public Worship)
FOG = 정치 (Form of Governmet)
LC = 대요리문답 (Larger Catechism)
SC = 소요리문답 (Shorter Catechism)
Q = 질문 (Question)
A = 답 (Answer)

모 범 예 배 안 내

목 차

서 론	322
I. 예배로의 부름	324
II. 예배 규례	325
III. 예배의 성격	327
IV. 성수 주일	329
V. 예배 순서	330
A. 개회선언	330
B. 정규예배	331
1. 예배로의 부름	331
2. 기도	332
3. 성경봉독	333
4. 말씀선포	334
5. 시편낭독.찬송.Spritual Songs	338
6. 십일조와 헌금들	340
7. 신앙고백	341
8. 성례	342
a. 설명	342
b. 세례예식	343
c. 성찬예식	350
9. 축도	354
C. 행사예배. 특별예배	355
1. 서약	355
2. 금식	355
3. 하나님께 감사	356
4. 특별행사예배	356
5. 결혼예배	357
6. 장례.추모예배	359
7. 안수 및 임직예배	360
8. 취임예배	362
부록 : 개혁주의, 교회예배순서의 샘플	364

서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시66:1)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 100:2)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 100:3)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4)
대저 여호와께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
하심이 대대에 미치지리다.¹ (시 100:5)

ARPC 의 "모범예배안내"는 1645년 웨스트민스터 성회모임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께 드리는 모범예배지침"을 계승한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그 후 "스코트랜드 교회의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1799년, 펜실바니아 주 Greencastle에서 모인 "Associate Reformed 총회"에서 1645년에 만들어진 "모범예배지침"을 수정하고 교단의 "공식 Standards" 의 6개 부분 중 한 부분으로 채택하였다. 1799년 이후, 200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수정이 1645년에 만들어진 "모범예배안내"에 더해졌다. 현재 사용하는 "모범예배지침(The Directory of Public Worship)"의 바로 전까지 사용되던 지침은 "The Book of Worship of the Associated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인데, 여러 수정 절차를 거쳐 1975년에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현재 사용하는 문서를 이전 것(1975년도)과 비교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변경사항은 "The Book of Worship"이란 명칭이 "The Directory of Public Worship"으로 바뀐 명칭의 변경이다. 이 변경은 3가지를 반영해 준다.

첫째, 단순히 예배의 형태를 설명하는 정도이던 이전에 비해, 예배에 관해 더 세부적으로 직접적인 지침과 안내를 보여준다. 1645년에 만들어진 예배지침은 직접적이었고, "Westminster" 신앙고백과 현재 사용하는 "Book of Common Prayer"의 역사성을 이어 받은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645년의 예배지침은 목사와 당회가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일에, 기독교인 다운 신중함과 타당성을 갖춘다는 원칙을 준수하면, 재량권을 갖고 예배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he Directory of Public Worship"(현재 사용하는 모범예배지침)은 이런 전통적인 의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1645년의 예배지침은 우리(ARPC)의 예배지침이 지난

1 시편 100편

200 여년 동안, 오직 성경(Sola Scripture)만이 예배의 내용과 인도하는 지침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위에 시행되어 온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The Directory of Public Worship”(모범예배지침)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이다.

셋째, 1645년의 예배지침은 이를 통해 목회신학에 유용한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1645년의 예배지침은 설교 작성, 설교 듣기, 기도하기 그 외에도 여러 도움과 조언을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 “The Directory of Public Worship”(ARPC 의 예배지침)은 내용과 각주를 통해 여전히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 각주는 살피고 검토할 성구들을 보여줌으로서 출발점 역할을 한다. 지침의 목록은 빠짐없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 따라 성경의 원래 정신을 보여준다. 또한 각주는 “The Directory of Public Worship”과 “The Standards of the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ARPC 교단의 헌법)가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이 특성으로 문서들은 탁월한 통일성을 이루며 지침 또한 편리하고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내용에 따른 “The Standards”(헌법)와 상호보완 작용을 하는 것 때문에, 두 문서의 저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The Standards”(헌법)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그 아래에 있는 부수적인 것이다.²

여러 경우에 따라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을 보여주는 샘플들이 부록에 첨부돼 있다. 이 샘플들은 종교개혁 이후로 부터의 개혁주의 예배에 대한 특별한 완성품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건본일 뿐, 완전하고 전체적인 예배순서로 공인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바른 예배순서를 원하는 우리 시대의 목사들과 당회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560년에 만들어진 “The Scots Confession”(Scots 신앙고백)은 공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로서 모든 것이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떤 형식을 만드는 원칙과 순서는 모든 세대와 시간, 장소에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식들은 그 시대에 맞도록 고안 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고양시키기 보다는 미신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변화가 필요하며 또 바뀌야 될 필요가 있다.”³ 이것이 “공예배지침“이 어떤 것

² COF 1.X.LC Q.3.SC Q.2.

³ The Scots Confession, 20장, “General Councils, Their Power, Authority, and the Cause of Their Summoning.”

인가를 이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이것은 21세기 초, 지침의 문맥에도 기재 돼 있으며, 거슬러 올라가 1645년의 지침도 연결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 지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하는 공동예배를 위한 지침이므로, 이 공동예배를 가장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예배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가정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기쁨을 맛보지만 이는 마치 시내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공동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하는 강물을 마시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된다.”⁴ 모범예배(공동)지침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때 힘과 위로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⁵

제 1 장

예배로의 부름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⁶

자연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 준다. 그는 선택시며
만물에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찬송하며, 부르며,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⁷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⁸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모든 인간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일들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마땅하신

4 시편 46:4.

5 시편 122:1.

6 시편 66:1-2

7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XXI.I.

8 대요리문답. 문 1.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속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⁹ 진실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¹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¹¹

2. 매일 매일의 모든 순간 순간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명예,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¹²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개인예배, 가정예배, 많은 사람이 모여 하는 공예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3.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7일 중 하루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¹³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¹⁴

제 2 장

예배의 규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¹⁵

...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禮拜)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으며,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에 사용하거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¹⁶

9. 시.95, 시.96, 롬. 1:18-23

10. 고전. 10:31

11. 롬. 12:1-2

12. 시. 95-100

13. 창. 2:1-3, 출. 20:8,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XXI.VII

14. 신. 12:29-32, 마. 15:8-9, 요. 4:23-24, 딤후. 3:16-17,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XXI.I-II.

15. 딤후. 3:16-17(ESV).

16.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XXI.I.

문 2.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¹⁷

1.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예배할지를
정해 주신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알려준다. 우리
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
고 모두 그대로 지켜야 한다.¹⁸
2. 하나님께 하는 예배의 요소는 성경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거나
성경으로부터 유익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얻을 수 있다.¹⁹
3. 예배에 관한 사항 중, 예배의 순서,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 장소,
시편찬송, 찬송 그리고 Spiritual Song 같은 어떤 사항들에 대한
규정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교회는 늘 준수²¹해야 하는 성경전반에 걸친 규례의 성
격에 입각해서 자연스러운 신앙적직감과 기독교적인 신중 함으
로 다루어야 한다.
4. 예배에 관해 정확한 규례나 예배순서가 성경에 기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
양이 모든 장소와 때에 따라 다 똑 같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²²
5. 예배에 대한 권한은 목사와 당회에 있다.²³

17 소요리문답 문 2.

18 신. 12:29-32, 대요리문답 문 109

19 담후. 3:15-17, 웨스트민스트신앙고백 I.VI.

20 웨스트민스트신앙고백 I.VI.

21 고전. 11:13-16; 14:26-40.

22 상기에 인용된 "The Scots Confession"의 전문 참조

23 정치 1.2, 9.6, 6.8.L

제 3 장 예배의 성격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²⁴

1.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의 역사이다.²⁵
2. 예배는 오직 한 분²⁶, 성부²⁷, 성자²⁸, 성령²⁹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스러우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³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자³¹ 하나님과의 통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다.³³
3.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예배는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³⁴ 좁은 의미로는 공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예배처럼 격식을 갖춘 예배 혹은 기도, 찬양, 말씀사역과 성례처럼 예배에 준하는 것들이 예배이다.

24 롬. 11:33-12:1

25 시 89. 시 116:12-19. 마 22:36-39, 뱀전 2:9-19

26 신 6:13-15, 마 4:10, 롬 11:36

27 요 4:21-23 28 요 5:23

29 마 28:19 30 사 59:2, 롬 3:23, 5:12

31 요 14:6, 뱀전 2:5, 골 3:17 32 엡 2:18 33 신 12:29-32, 마 15:8-9, 요 4:23-24, 뱀후 3:16-17, COF XXI-I-II

34 롬 12:1-2, 고전 10:31

35 히 10:19-25

4. 예배는 넓은 의미이던 좁은 의미이던, 공식적이던 개인적이던, 미리 계획, 준비 됐던 즉흥적이던, 그 장소나 외적조건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으로, 성경³⁶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드릴 때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이 아닐지라도, 가급적 예배를 위해, 특히 공식예배를 위한 장소를 따로 구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족단위로나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표현이다. 이 경우의 예배는 반드시 성경봉독, 기도, 찬송을 포함해야 하며, 참석한 사람의 나이와 이해력 정도에 맞추어 문답식이나 토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개인예배, 가정예배에 사용하는 자료들은 성경과 ARPC 교단의 Standard (6가지)와 일치해야 한다. 통상, 가정의 가장이 가정예배의 인도를 책임지며 모든 가족이 다 참석하도록 권장하도록 한다.³⁷
6. 공적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곳에 모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례를 통해 만나시고 보살피 주시는 집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 감사, 회개, 죄의 자백, 간구, 신앙고백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집회이다. 그러므로 공적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중점을 뒀야 한다.³⁸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³⁹ 순수하고⁴⁰ 성실한⁴¹ 영으로 참여하여 경건과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한다.

36 요 4:23-24, 신앙고백 XXI,VI

37 신 6:4-9, 엡 6:4, 신앙고백 XXI. VI

38 롬 12:1-2, "...holy and acceptable to God."

39 신앙고백 XXI, I-V

40 요 4:23-24

41 마 6:1-18

제 4 장 성 수 주 일

1. 적절한 분량의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따로 정해 놓는 것이 당연스러운 원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7일 중 하루를 따로 정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긍정적, 도덕적, 영구적인 계명을 주셨다.⁴³ 창조사역의 첫날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 까지는, 이 날은 한 주일의 7째 날이었으나,⁴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한 주일의 첫째 날이 이 날로 되었고,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⁴⁵
2. 주일은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믿음의 활동들을 하며, 꼭 필요한 일과 자선을 행하는 일 이외에는 온 종일 거룩하게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며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⁴⁷ 이렇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주일 전에 미리 마치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온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⁴⁸
3.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 날은 기쁨과 축제를 경험하는 거룩한 집회가 될 것이다.⁴⁹ 이 날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한 고난과 염려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 천국의 안식을 맛보게 해주신다.⁵⁰ 우리는 창조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본 받아야 한다.⁵¹ 우리는 우리의 해방과 구원을 기억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야 한다;⁵² 구약시대 우리의 조상들도 애굽에서 받은 구원과 약속의 땅에서 선물로 받은 안식을 기억했다.⁵³

42 출 20:8

43 신앙고백 XXI.VII

44 출 20:8, 31:12-17

45 눅 24:36-49; 요 20:19-23, 26-29; 행 20:7; 고전 16:2; 계 1:10

46 사 58:13-14

47 막 2:23-3:5, 눅 13:10-16, 신앙고백 XXI.VIII

48 출 16:5, 22-30; 신앙고백 XXI.VIII; 대요리문답 117

49 느 8:9-12; 시 122:1; 사 56:1-8, 58:13-14

50 시 22:3

51 출 20:8, 31:17

52 히 4:1-10

53 신 5:12-15

4. 주일날 이외 다른 날의 예배도 정할 수 있으나,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기쁨의 특전이며 거룩한 의무이다.⁵⁴

제 5 장 공식예배 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이다.⁵⁵

A. 설 명

하나님만이 인간 양심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으로 부터 인간의 양심은 벗어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에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그런 맹신과 맹종을 요구함은 양심과 이성(理性)의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다.⁵⁶

1. 공예배의 요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 되고 있다.⁵⁷
2. 예배의 통상요소들은 공예배를 위해 규정에 따르는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요소들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준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이 모든 종류의 예배에 항상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세례의식)

54 히 10:25

55 시편 105:1-4(ESV)

56 신앙고백 제20장 2

57 신앙고백 제21장. 3. 5 참조

3. 행사예배의 요소들은 행사성격에 맞춰 이루어진다.

B. 통상예배의 요소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성경봉독; 건전한 설교, 말씀에 대한 이해, 믿음, 경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 청종; 심령으로부터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합당한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음; 이 요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통상예배의 요소들이다....⁵⁸

1, 예배로의 부름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⁵⁹

- a. 함께 모여 예배함은 큰 특권이며, 예배 중에 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3위1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순종이다. 성경은 많은 이런 예배로의 부름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시편이 보여준다.⁶⁰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로의 부름은 공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행위로 따로 구별해야 함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과 기쁨으로 경배하도록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58 신양고백 21장.III. V. 인용구는 뒤에 기록된 “C” 행사예배, 특별예배 부분(319페이지)에 계속된다. 모범예배안내서는 공식예배의 통상요소에 대해 “신양고백서“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신양고백“에 있는 요소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웨스트민스터신양고백의 원본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예배 안내“는 ”예배로의 부름“과 ”축복“으로 예배를 마침을 보여주지만, ”신양고백“에는 이것이 없으며, 웨스트민스터회의도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59 시편 95:6-7

60 시편 34:1-3, 95:1-7, 96:1-9, 98:1-6, 100. 105:1-6, 107:1-3 111:1-5, 113:1-3, 117, 118:1-4, 150

- b. 이런 예배로의 부름 안에서, 교회 또한 소망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2. 기도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 a. 모든 사람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다.⁶³
- b. 공예배의 모든 부분들은 찬양이든, 시편낭독이든, 말씀봉독이나 듣기이든, 예물봉헌이든, 수찬이나 축도가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행해야 한다.⁶⁴
- c. 공예배의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속성과 놀라우신 그 분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과 경배,⁶⁵를 포함해야 한다.⁶⁶ 기도에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과 복⁶⁷에 대한 감사, 죄의 고백(목사는 죄의 자복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 죄 사함의 확신을 공포해야 한다.), 중보, 간구가 들어 있어야 한다.⁶⁸

61 시편 96:1-3 97:1 98:7-9

62 소요리문답 98

63 신앙고백 21장 3

64 엡 6:18, 골 4:2, 살전 5:17

65 시편 146:1-2, 시편 147:1

66 시편 145, 150:2

67 시편 103

68 딤후 2:1-2, 대요리문답 183-185

- d. 기도는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므로,⁶⁹ 모든 공 예배에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합심기도회로 모일 때도 있다. 교회는 또한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 통성기도, 조용한 기도모임으로 모일 수 있다. 시편 말씀들이 준비된 기도로 혹은 새로운 기도문의 견본으로 사용 될 수 있다.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대표 기도자로 지명, 모든 교인들을 인도 할 수 있다.⁷⁰
- e. 모든 교인들을 기도 인도하는 기도자는 모든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⁷¹

3. 성경봉독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 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 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⁷²

- a.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봉독은 공예배의 분명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⁷³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⁷⁴ 성경을 통해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신다.⁷⁵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룸 없이 헛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⁷⁶

69 신양고백 21장. 3

70 대하 6:12-42, 20:-9, 스 9; 단 9:3-19, 마 6:9-13; 행 4:24-30
약 5:13-16; 모범예배 2장 5

71 전5:13-16, 마6:7-13(주기도문에 나오는 복수대명사들의 사용주시)

72 대요리문답 157 73 느 8, 행 13:15, 고후 3:15, 딤후 4:13

74 히 4:12(ESV) 75 행 20:32 76 사 55:10-11

- b. 여러 사람들 모임에서의 성경봉독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대표로 하거나, 다같이 함독하거나, 교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⁷⁷
- c. 공예배시 성경봉독은 말씀선포(설교)에 연결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므로 성경봉독을 이를 위해 구별된 곳에서 하면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성경봉독은, 어떤 특별한 단어나 문장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어떤 설명이나 논평 등의 방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에 대한 해석, 말씀이 주는 교훈, 말씀의 적용 등은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d.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⁷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⁷⁹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예배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성경봉독은 규범과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4. 말씀선포(설교)와 설교 듣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 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 a. 하나님께서는 단지 읽기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읽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라고 주셨다.⁸³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⁸²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히 당회들

77 대요리문답 156 78 신 8:3, 마 4:4
 79 딤후 3:16-17(ESV성경) 80 대요리문답 155
 81 딤후전4:13; 5:17
 82 요 1:14-18; 히 1:1-2, 12:25, 요일

과 노회들은 성경과⁸³ ARPC 교단의 Standard의 기준에⁸⁴ 따라 설교의 은사를 받은, 자격 있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 b.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⁸⁵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장로나⁸⁶ 신학생 등⁸⁷,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⁸⁸

- (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⁸⁹

목사의 입술은, 구약 때의 제사장의 입술과 같이 “지식을 지켜야 하며,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목사는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이기 때문이다.”⁹⁰ 목사는 부지런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⁹¹ 목사는 자신의 구원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구원을 확실히 하도록 말씀사역에 전력해야 한다.⁹² 목사는 말씀 사역 이외의 다른 일들로 분주하게 되어 말씀사역이 방해받거나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말씀 사역을 우선, 전력해야 한다.⁹³

- (2) *사람의 지혜로 매혹적인 말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⁹⁴

목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83	딤후 3:1-7, 5:22; 딤후 1:5-9	
83	정지 9.23	85 딤후 2:15
86	딤후 3:2, 딤후 1:9	87 정지 9.23
88	대요리문답 159 (본 페이지와 말씀에 관련된 부분에도 계속 나옴)	
89	행 18:25, 딤후 4:2	90 말 2:7
91	딤후 4:10	92 딤후 4:16
93	행 6:2-4	94 고전 2:4, 14:19

자기의 말로 사람을 즐겁게 하려거나 감동을 주려거나 기쁘게 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야 한다.⁹⁵

- (3)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면을 알게 해야 한다;*⁹⁶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고무적이고 유익하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가르치고, 말씀의 충만함과 상징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⁹⁷

- (4) *듣는 사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지혜롭게;*⁹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뿐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읽은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⁹⁹ 목사는 자신이 늙은 사람의 입장, 젊은 사람의 입장, 배운 사람의 입장,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수준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당하고 평범한 언어로 말해야 한다.

- (5)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을 위한 강한 사랑과 열심히;*¹⁰⁰

하나님의 낮은 목자로, 목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목사의 동기가 돼야 한다.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해야 한다.

- (6)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의 회심, 교훈, 구원을 위한 진실함과 진지함으로.*¹⁰¹

목사가 모든 성실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⁹⁵ 고전 2:5 ⁹⁶ 렘 23:28, 행 20:27, 고전 4:1-2

⁹⁷ 눅 24:25-27, 44-48; 롬 10:4; 고후 1:20; 갈 3:24

⁹⁸ 눅 12:42, 고전 3:2, 골 1:28, 딤후 2:15, 히 5:12-14

⁹⁹ 느 8:7-12, ¹⁰⁰ 행 18:25; 고후 5:13-14, 12:15; 빌 1:15-17; 골 4:12

¹⁰¹ 요 7:18; 행 26:16-18; 고전 9:19-22; 고후 2:17, 4:2, 12:19; 엡 4:12
살전 2:4-6, 딤후 4:16

도 중요하다,¹⁰²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지속되도록 전념해야 한다.¹⁰³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죄인들을 회개¹⁰⁴ 시키는 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믿는 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열심해야 한다.¹⁰⁵

c.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¹⁰⁶

(1)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참여*,¹⁰⁷

모든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서로 서로 모두 이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¹⁰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므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2) *들은 말씀을 성경에 맞추어 살림*,¹⁰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받은 말씀을 성경에 비교하여 상고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서는 안되며,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는 우상숭배를 행하는 것이다.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진리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¹¹⁰

진실 된 말씀이 설교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102 잠 4:23; 딤후 4:6-16, 6:20-21; 딤후 1-4

103 사 52:7, 롬 10:14-15. 104 신약고백 15장.1 105 행 20:27.

106 대요리문답 160(본 페이지와 말씀에 관련된 부분에도 계속 나옴)

107 시 119:18, 잠 8:34, 눅 8:18, 엡 6:18-19, 뱌전 2:1-2

108 히 10:25 109 행 17:11

110 행 17:11, 살전 2:13, 살후 2:10, 히 4:2, 약 1:21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즉시 그리고 신실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4)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눈다.*¹¹¹

설교 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신중히 묵상해야 한다.¹¹² 다른 사람들, 특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말씀을 상의하는 것은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5)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속에서 열매를 결실해야 한다.*¹¹³

설교 된 말씀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¹¹⁴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다.¹¹⁵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열매를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¹¹⁶

5. 시편, 찬송, 신령한 노래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훤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¹¹⁷

- a.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음성과 악기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부분임을 규정하고 있다.¹¹⁸ 음악으로 찬양드

111 신 6:6-7; 눅 9:44, 24:14; 히 2:1.

112 시 1

113 잠 2:1, 시 119:11, 눅 8:15, 약 1:25

114 시 119:11

115 약 1:21

116 눅 8:4-15

117 시 92:1-4(ESV)

118 시 33:1-3; 1891년 고전 25, 대상 29:25-30, 참조(1891년, 총회가 승인한 공예배 예서의 악기사용 내용)

림은 하나님의 영광¹²⁰과 하나님의 백성들¹²¹에게는 도움, 위로, 기쁨을 주며, 이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¹¹⁹에 따른 것이다. 어떤 것은 특별히 노래하도록, 어떤 것은 악기연주, 어떤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위한 것이거나 찬양을 인도하도록 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은 특혜이다.¹²³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은 목사와 당회의 관리하에 사용돼야 한다.¹²⁴

- b.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음악을 만들도록¹²⁵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공예배에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찬양 드림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의 일원으로, 모든 교인들은 목사와 합심하여 기도 함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에서 찬양부르는 사람과 악기연주자와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음악을 봉헌토록 해야 한다.
- c.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설교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듯이, 음악인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¹²⁶들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기 위한 음악은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된다.
- d.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시편은 감사, 애통, 자백, 탄원,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찬양의 책으로 이루어진 모음이며,¹²⁷ 부분적으로 신약시대 교회에서 찬양의 기반이 된다.¹²⁸ 시편은 한 사람이 하던, 여럿이 하던,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함께하던 자주 해야 한다. 시편은 또한 기도로, 낭독으로 혹은 혼자, 합독, 또는 교독으로 소리내 찬양할 수 있다.¹²⁹

119 대하 29:25, 엡 5:19, 골 3:16

120 시 96:1-9

121 시 57, 시 147:1-3, 고전 14:26, 골 3:16-17, 살후 2:15-17

122 대상 15:22, 고전 14:26

123 시 148; 시 150:6; 계 5:8-10, 14:1-3

124 정치 1.2, 9.6, 6.8.L

125 대상 15:16-24, 고전 14:26

126 고전 10:31, 14:26

127 대하 29:25-30

128 엡 5:19, 골 3:16, 약 5:13 129 위에 있는 V.B.2.d 참조

- e.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다른 찬송이나 신령한 노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성경, 특히 시편 그리고 ARP 교단의 교리 Standards 는 그와 같은 다른 찬송이나 신령한 노래¹³⁰들을 어떻게 부르고 만드느지를 지도해야 한다.

6. 십일조와 예물봉헌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
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¹³¹

- a. 예부터 십일조와 예물봉헌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은 이를 받으셨다.¹³² 이것들은 통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로서,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¹³³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으로 받은 것의 일정부분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셨다.¹³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한 주의 첫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예물을 따로 준비하라고 명했다.¹³⁵ 이 날은 초대 교회들이 예배를 위해 모인 날과 일치한다.¹³⁶
- b. 십일조와 예물들은 진실 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한다. 교만한 마음, 독선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다.¹³⁷ 예물은 억지로 하거나 강제 때문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¹³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 드려야 한다.¹³⁹

130 총회는 1946년, 시편에 추가하여 찬송가 사용을 승인하였다. 총회의 예배담당위원회는 ARP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승인, 추천된 그런 찬송가 목록을 보관한다.

131 시 96:7-8

132 창 4:3-7, 14:20(히 7:1-9), 28:22

133 출 25:1-9; 레 27:30-34; 느 7,28,29; 말 3:6-10

134 마 5:23-24,23:23;막 12:41-44;눅 20:25

135 고전 16:2

136 행 20:7

137 마 6:1-4

138 행 2:44-45,4:34-35; 고후 9:7

139 고후 8:9

7. 신앙고백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
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¹⁴⁰

- a. 신앙고백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예배행위이다. 신앙고백은 성경 중 어떤 부분을 택해서 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신조들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RPC 교단의 Standard 교리는 서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조 같이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사용하는 신조들은 성도들의 신분을 “하나, 거룩, 보편적 그리고 사도교회”로 표현한다.¹⁴¹
- b. 신앙고백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행하심과 놀라우신 구원사역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 첫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애굽으로부터 구원, 인도받은 것을 선포했다.¹⁴² “*췌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라는 선포는 훗날 Synagogue(유대인 회당)에서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고백으로 사용됐다.¹⁴³
- c. 신약성경에는, 교리나 신조에 입각한 찬양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짧은 신앙고백이다.¹⁴⁴ 또한 사도시대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는 세례받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니케아 신조 외에, 이단들과 구별되는 정통신앙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¹⁴⁰ 딤편 3:16(ESV)

¹⁴¹ 니케아신조

¹⁴² 신 26:5-9

¹⁴³ 신 6:4-6

¹⁴⁴ 엡 4:4-10, 빌 2:6-11, 딤편 3:16 과 딤후 2:11-12 은 본이 되는 신앙고백이다.

8. 성례

성례는 은혜언약의 거룩한 표요, 인치심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¹⁴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며 인치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¹⁴⁶

a. 설명

- (1) 성례는 은혜언약의 거룩한 표요, 인치심이다.¹⁴⁷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¹⁴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며, 언약¹⁴⁹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다. 인침이란, 성례가 하나님은 약속¹⁵⁰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함을 말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¹⁵¹임과 우리가 가질 언약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¹⁵²
- (2) 성례는 정해진 은혜의 방편이다.¹⁵³ 성례를 통한 성례의 표호와 실체 (표호가 상징¹⁵⁴하는 실물과 그 효과)의 영적연결로, 성례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는 방편이다.¹⁵⁶

¹⁴⁵ 신양고백 27장.1

¹⁴⁶ 소요리문답 92

¹⁴⁷ 신양고백 27장.1, 대요리문답 162

¹⁴⁸ 행 2:37-39, 롬 4:11, 6:3; 갈 3:27

¹⁴⁹ 창 17:1-14, 마 28:19-20

¹⁵⁰ 롬 4:11-21

¹⁵¹ 갈 3:27-29, 뱀전 2:10

¹⁵² 마 28:19-20, 롬 6:1-14, 고전 10:21

¹⁵³ 대요리문답 153-154, 161-177; 소요리문답 85,88-98

¹⁵⁴ 신양고백 27장 7, 대요리문답 163

¹⁵⁵ 소요리문답 32-38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얻은 은혜의 요약)

¹⁵⁶ 신양고백 27장.3, 28장.6 대요리문답 161-162, 소요리문답 91-92

- (3)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¹⁵⁷ 고로 성례는 규정에 따라 말씀 사역자로 안수 받은 목사만 집행할 수 있다. 성례를 행할 때는 필히 말씀선포가¹⁵⁸ 있어야 하는데, 성례가 의미하고 인치는 복음의 약속과 의무를 나타내는 말씀을 선별하여 선포한다.
- (4) 세례와 성찬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 속의 두가지 성례이다.¹⁵⁹
- (5) 헌금과 성례의 집행은 목사와 당회의 권한이며, 성경과 ARPC의 Standard 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¹⁶⁰

b. 세례 성례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 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 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 지게 되는 것이다.¹⁶¹

- (1) 세례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¹⁶² 증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과 의를¹⁶³ 설명하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죄 사함 받음과,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자됨과 부활과 영생 받음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와 인침이다.¹⁶⁴

¹⁵⁷ 신양고백 27장.3

¹⁵⁸ 신양고백 27장.4, 28장 2, 29장 3; 정치 9.6.A.A, 9.23

¹⁵⁹ 마 28:18-19, 눅 22:19-20, 신양고백 27장 4-5, 대요리문답 164
소요리문답 93

¹⁶⁰ 신양고백 27장 4; 정치 9.6.A.A, 6.8.L

¹⁶¹ 대요리문답 165

¹⁶² 신양고백 7장 3-4

¹⁶³ 신양고백 7장 3, 소요리문답 94

¹⁶⁴ 신양고백 28장 1; 대요리문답 165,177

세례 성례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언약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¹⁶⁵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위에 있으며,¹⁶⁶ 이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한다.¹⁶⁷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¹⁶⁸ 말씀하시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그리함으로서 세례성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¹⁶⁹ 살아야 한다.

- (2) 세례성례는 “올바로 시행하면, 그 약속된 은혜가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¹⁷⁰ 그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성인이든 영아이든),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나타나고 부여되는 방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방편이다. 매 세례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다.¹⁷¹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세례를 상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지 않음을 알므로¹⁷²,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확증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도 새로워지며, 우리의 순종도 새롭게 하게 된다.¹⁷³
- (3) 세례는 세례받은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¹⁷⁵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인¹⁷⁶ 유형교회의¹⁷⁴ 일원으로 영입하는 거룩한 영접인데, 통상적으로는 이 유형교회

165 신양고백 27장1 166 마 28:19
 167 마 28:19
 168 출 6:7;fp 26:12,렘 7:23,11:4,24:7,30:22,31:33,32:38;겔 11:20
 14:11,34:30,36:28,37:23;호 2:23; 스 8:8,13:9; 고후 6:16 히 8:10;
 벰전 2:9-10
 169 출 4:22, 요 1:12-13 170 신양고백 28장 6
 171 대요리문답 167 172 딤후 1:2, 히 6:17-18
 173 롬 6:3-14
 174 고전 12:13,신양고백 25장 2-4, 대요리문답 62-63
 175 마 13:47-50

밖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¹⁷⁷ 그러므로 세례는 예배모임 행사에서 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세례시행시 교인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 강조함이 마땅하다.

(a) "성령과 믿음으로 성도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한다. 그리고 상호간에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각기 받은 은사와 은혜를 통용하며; 공사간에 덕을 세워 피차 영육간의 유익 유익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¹⁷⁸

(b) "교인들은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행하며,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신실하게 동참하고, 주께서 복주심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그리스도와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평안과 교제를 유지하며, 풍성한 복음의 증인들을 산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¹⁷⁹

(4) 세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인도하심을 강조해야 한다. 세례는 그리스도께 헌신을 나타내는 주된 방편이 아니다. 유아세례는 이들의 부모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하기를 구하는 행위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례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된 초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데 있어야 한다: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하심을 확증하고, 이들을 언약의 진실로 부르신다는데 초점을 두는!

176 엡 2:19, 딤후 3:15

177 신앙고백 23장 2

178 신앙고백 26장 1

179 정치 4.4

- (5) 세례성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¹⁸⁰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며, 말씀사역을 맡은 안수받은 목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¹⁸¹ 세례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로 세례한다:
- “(세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 (6) 세례를 준 다음, 목사는 교인들에게 새로 세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 환영하도록 권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상호간에 신실하기를 권면한다.
- (7) 세례성례는 한 사람이 일생에 한 번 받는다.¹⁸²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받아서도 안 된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언약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약속을 표시하고 인침을 의미하는 표시이다. 세례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신자가 됐다는 표시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죄 가운데 있고, 믿음도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이들의 약속도 없다. 그러나 이런 이들의 죄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나 하나님의 요구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 되도다...”¹⁸³ 라고 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인세례

- (8)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세례교인이 되기를 원하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80 마 28:19-20

181 신앙고백 27장 4, 28장 2; 정치 9.22, 9.24.L

182 엡 4:5, 신앙고백 28장.7

183 롬 3:4

세례성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행하기 전,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세례에 대한 의미,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의 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특권과 의무에 대해 가르치도록 한다.¹⁸⁴

- (9)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왜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영적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심에 대해 당회에서 개별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¹⁸⁵ 그리스도인의 삶과 헌신에 대한 당회시험을 통과하고, 세례교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묻는 ARPC의 서약질의에 동의한 후, 세례공예배 시간에 모든 교인들에게 소개된 후, 세례 받는다.¹⁸⁶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목사는 죄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행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¹⁸⁷
- (10)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교회의 세례교인명부에 기록돼야 하며, 하나님의 집의 동료 성도들과 교인들로부터 동료로 환영받아야 한다.¹⁸⁸
- (11) 성인이 자신들의 유아나 어린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 부모 중 하나라도 믿음이 있는 경우, 그 부모의 믿음에 의해 자녀들도 동시에 함께 세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⁸⁹

유아세례

- (12) 유아나 어린아이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 그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¹⁹⁰에게도 주어진다.¹⁹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184 행 2:40-41, 16:32-33
 185 정치 4.5
 186 정치 4.5. A-D
 187 정치 4.5.D
 188 엡 2:19
 189 고전 7:14
 190 창 17:7, 행 2:39, 갈 3:16, 신앙고백 XXVIII.IV, 대요리문답 166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믿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도 주 하나님의 은혜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 해 준다. 세례성례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 집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권리가 임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요구가 세례를 통해 표시되고 인쳐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당회 또한 부모들에게 자녀를 세례받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의무를 갖는다.¹⁹²

(13)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는 세례는 교회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주시며 아들이 태어나면 생후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다.¹⁹³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구약시대에 언약의 표시였던 할례는¹⁹⁴ 신약시대에서 세례로 대체되었으며, 모든 언약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¹⁹⁵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를 확증하시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입하시고, 이들을 믿음과 성실함 가운데로 부르시며,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걸 의미한다.

(14) 유아세례를 주기 전, 목사는 부모들에게 언약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도록 한다.¹⁹⁶

(15) 아이가 공예배시간에 세례를 받을 때, 최소한 부모 중 한 사람 혹은 법적으로 친권을 가진 사람이, 다음 질문에

191 창 17:10-13, 고전 7:14

192 정치 6.8.D

193 창 17:12, 레 12:1-3

194 마 28:18-19; 행2:38, 15:5-29; 고전 7:18; 골 2:11-12

195 행 2:28; 16:15,33

196 창 18:19; 신 6:4-9, 11:18-25; 시 78:5-8; 엡 6:4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

- (a) 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될 때 한 서약을 다시 한번 서약 하겠습니까?
 - (b)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에 의해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 (c) 귀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원하며, 귀하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귀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까?
 - (d) 귀하는 이제 전적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며, 일생을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 (16) 세례를 받은 아이는 이로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입된 사람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교인들이 둘러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살핌과 사랑으로,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¹⁹⁷ 계속 성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도록 인도하며,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적합하다.¹⁹⁸ 교인들은 다음 질문에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
- (a) 본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기독교의 믿음 가운데 양육하는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까?

*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은 이른바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¹⁹⁷ 요 13:34-35

¹⁹⁸ 갈 6:1-2; 히 3:12-13, 10:23-25, 12:15-17

(17) 그 다음 목사는 위에 설명한 절차대로 아이를 세례한다.¹⁹⁹ 성례는 아이, 부모 그리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 마친다.

(18) 세례를 받으면, 아이의 이름은 세례교인이나, 수찬미자 격교인으로 기록된다.²⁰⁰

c. 성찬 성례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 연합과 교통이 확고 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귀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²⁰¹

(1) 성찬성례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키는 영적 은혜의 공급방편이다.²⁰²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성례에 임재하시며,²⁰³ 진실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는다.²⁰⁵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²⁰⁷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²⁰⁴ 부활하신 주님과²⁰⁶ 교제와 연합을 지속케 하시고 더 확실하게 하신다.

(2) 성례가 가장 소중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199 상기 (5)와 (6)을 참조

200 정치 4.2

201 대요리문답 168

202 신앙고백 29장 1

203 고전 10:16, 신앙고백 29장 7, 대요리문답 170

204 요 6:26-59, 대요리문답 170

205 신앙고백 29장 7. 소요리문답 29-38과 대요리문답 57-90은 모든 혜택에 대해 설명

206 소요리문답 96; 대요리문답 168, 177

207 마 26:29, 막 12:25, 눅 22:18

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²⁰⁸ 성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찬양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편이 된다.²⁰⁹

- (3) 성(만)찬 성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언약을 새롭게 하는 행위이다.²¹⁰ 성(만)찬 성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 되는 신비한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서로 서로 연합하는 결속과 서약이다.²¹¹ 그러므로 성(만)찬 성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시간에²¹² 행해야 하며, 말씀사역을 맡은 안수 받은 목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²¹³ 또한 성(만)찬 성례를 행할 때는 기록되고 선포된 주님의 언약 말씀과 전적으로 일치됨을 보여주는 성경말씀의 봉독과 설교가 있어야 한다.²¹⁴
- (4) 성(만)찬 성례식탁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식탁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성경말씀들은 그 기원이 주님의 명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²¹⁵ 말씀들은 이 예식은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해야 한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주님게로 부르신다.²¹⁶ 주님은 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부르신다. 그리하여 죄가 지워지고 새로워짐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도록!²¹⁷ 주님은 이들이 주님게로 와서 주님의 종으심과,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들이 복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도록 부르신다.²¹⁸
- (5)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비와 사랑의 이름으로, 목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사람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만)찬 성례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208 롬5:6-11, 고전11:23-26 209 눅22:14-20, 고전11:23-26,

210 신양고백29장.1, 대요리문답168, 211 고전10:16-17, 신양고백29장.1

212 행20:7; 고전11:18, 20, 33 213 신양고백27장.4, 29장3; 대요리문답169;

정치 9.6.A 214 출24, 느8-10, 행20:7 215 눅22:19,

고전11:23-26 216 마11:28-29 217 행3:19-20, 218 시34:8

- (a) 세례를 받고, 신앙고백을 하고, 유형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만)찬 예식에 참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참여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을 상기시킨다.²¹⁹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들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도록 기도하도록 한다.²²⁰
- (b) 유형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도 될지 확신하지 못할 때, 참여하도록 권한다. 이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사함 받기를 원하면, 성(만)찬 예식은 이들의 영적인 위로와 힘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²²¹
- (c) 죄를 짓고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례에서 먹고 마시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²²²
- (d) 유형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성(만)찬예식에서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사람은 집례 중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들에게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와 자신을 위한 영적필요를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한다.

²¹⁹ 롬 5:6, 고후 5:21

²²⁰ 고전 11:28, 소요리문답 97,
정치 4.5.A (추가 정보는 대요리문답 171-177참조)

²²¹ 대요리문답 172

²²² 고전 11:27-29, 대요리문답 173

- (6) 성(만)찬 예식제도에 대한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예식을 진행한다.²²³ 축사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위해 떡과 잔을 따로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구원을 위한 넘치는 공급을 감사한다²²⁴. 목사는 떡을 떼 후, 잔을 든 후, 떡과 잔을 성도들에게 나눈다.²²⁵ 장로들은 목사님과 함께 주님 나라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므로²²⁶, 떡과 잔을 나눌 때, 목사를 도와 함께 나누는 것이 정상이다. 교인들은 떡과 잔을 따로 따로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같이 함께 먹고 마실 수도 있다. 모두가 다 먹고 마신 후 감사기도를 드린다. 예식이 끝난 후, 정중히 남은 떡과 잔을 처리한다.
- (7) 각 교회의 당회는 몇 번 성(만)찬 예식을 행할지를 정한다.²²⁷ 하나님의 백성들이²²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이며, 영적인 영양을 주는 혜택임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할 만큼 정기적으로 행한다. ²²⁹
- (8) 성례는 전 교회적인 행사이므로 보통 전 교인들이 참석한 공예배 중에 행하지만, 다른 예식 중에 행할만한 합당한 사유나 행사가 있을 때, 당회나 기타 교회치리회는 다른 예배 행사 때에 행할 수 있다. 이런 행사는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공예배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²³⁰

223 마 26:20-30, 막 14:17-26, 눅 22:14-20, 고전 11:23-32, 신앙고백 29장 3, 대요리문답 169

224 마 26:26-27, 막 14:22-23

225 마 26:26-27, 막 14:22-23, 눅 22:19-20. 대요리문답 169

226 신앙고백 30장

227 정치 6.8.L

228 참조: 모범예배안내 중, 5장.A.2에 있는 통상예배요소의 설명.

229 대요리문답 177, ...주님의 성(만)찬은 자주 시행되어야 하며..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서....

230 신앙고백 29장.4

- (9) 건강상의 이유로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성(만)찬을 받을 수 있다.²³¹ 이 경우, 가능한 한 목사 외에 교회 직분자와 다른 교인들도 참여하여 성례는 함께 나누는 것임을 보여준다.

9.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²³²

- a. 고대시절부터 제사장, 선지자,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²³³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²³⁴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과²³⁵ 요셉의 아들들을²³⁶ 축복했다. “시나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²³⁷ 축복하라고 명하셨다.
- b. 이는 신약시대에도 계속된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친히 손을 들어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²³⁸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서들도 축복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²³⁹
- c. 그러므로 말씀사역을 맡은 목사가 축도로 공예배를 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한 축복이나,²⁴⁰ 신약시대²⁴¹ 3위1체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한 축도나, 기타 성경적인 축도를 사용할 수 있다.
- d.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인 축도를 설교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ascription)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²⁴²

²³¹ 신앙고백 참조(h)

²³² 고후 13:13

²³³ 창 14:19-20

²³⁴ 창 27:27-29

²³⁵ 창 49:1-27

²³⁶ 창 48:1-22

²³⁷ 민 6:22-27, 참조 레 9:22, 신 21:5

²³⁸ 눅 24:50-51

²³⁹ 고후 13:14, 히 13:20-21, 벧전 5:14b

²⁴⁰ 민 6:23-24

²⁴¹ 고후 13:14

²⁴² 롬 16:25-27, 유 24-25

설교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ascription)은 어느 누구나 모두가 할 수 있다. 어떤 축도들은 기도의 형식²⁴³으로 이루어지며, 기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축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리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 사역을 위해 합법적 절차를 따라 안수 받은 목사만이 축도를 선포할 수 있다.

C. 행사예배. 특별예배의 요소들

*... 이 밖에도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때를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 등을 때와 절기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할 것이다.*²⁴⁴

1. 맹세와 서약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²⁴⁵

- a. 엄숙한 서약선서와 맹세의 재확인 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의 부분들이다.²⁴⁶ 예를 들면, 교회의 직분자를 안수하고 임직하는 행사나 결혼예식의 경우, 교인들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선서하고 하나님께 서약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한 그 맹세와 서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심을 기억해야 한다.²⁴⁷

2. 금식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²⁴⁸

243 룰 15:5-6, 13, 33
 244 신앙고백 21장 5
 245 시 65:1
 246 민 30, 신앙고백 22장
 247 출 20:7, 전 5:1-7
 248 율 1:14

- a. 금식은 자신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축복을 위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또는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잠시 동안 단식을 하며 일상생활의 안락함을 피하는 것이다.²⁴⁹ 가능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식 기간은 은밀히 비공개로 하면서, 성경 읽기, 설교 말씀 듣기, 찬양하는 일에 참석하며, 특별히 금식하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²⁵⁰

3.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²⁵¹

- a.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우리 됄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즉시 감사드리도록, 별도의 감사시간을 가져야 한다.²⁵² 시편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특별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에 관한 성경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다.

4. 특별행사에배

*곧 여호와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²⁵³

- a. 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²⁵⁵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특별한 절기²⁵⁴를 정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²⁵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정했다. 시대를 통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특별한 날들을 정했다. 또한, 교회의 유산을 상기하고, 사명을 보여주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행사의 날들도 있을 수 있다.

249 욥 2:15-17, 고전 7:5
 250 대하 20:3, 예 4:16, 사 58:6-12
 251 시 107:8
 252 예 9:17-32, 시 107
 253 시 77:11
 254 신앙고백 21장 5
 255 예 9:16-28; 요 10:22; 행 4:23-31, 12:5
 256 대상 20:1-3; 행 4:23-31, 12:5

이 모든 행사들은 주일 공예배에서 지킬 수 있다.

- b.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 취임예식이나 금식을 마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회, 노회, 총회가 정하면 주중에도 이를 행할 수 있다.²⁵⁷
- c. 행정당국이 금식일이나 감사드리는 날을 정하면, 교회는 통상 공예배를 통해 이를 존중하며 지키도록 고려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정에 합당한 기도문, 음악, 성구, 설교를 택해 전하도록 한다.
- d. 주일예배 참석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지만, 특별행사에배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이런 일에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얼마일 필요는 없다.²⁵⁸

5. 결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²⁵⁹

- a.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언약관계로 맺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다.²⁶⁰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되어 서로 돕고 동반자가 되도록 결혼제도를 세우셨으며,²⁶¹ 인류로 하여금 후손과²⁶² 교회가 거룩한 씨로²⁶³ 번성하도록 그리고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셨다.²⁶⁴ 결혼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사이에 맺어진 결합의 이 세상에서의 상징 모습이다.²⁶⁵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갈릴리거나 혼인잔치에 오시어 혼인을 축복하셨다.²⁶⁶ 결혼을 한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해야 한다.²⁶⁷

257 느 8-10

258 신앙고백 20장.2

259 창 2:24

260 창 2:24, 마 19:5-6, 신앙고백 24장

261 창 2:18, 엡 5:22-33

262 창 1:28

263 마 2:14-15

264 고전 7:2

265 엡 5:32

266 요 2:1-11

267 마 19:5-6, 롬 7:2-3

- b.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신부와 신랑 양쪽 모두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결혼이라야 한다.²⁶⁸
- c. 남자와 여자는 기독교식 결혼으로 하나 되기 전에, 결혼식을 거행하는 주에서 결혼에 관한 법적절차를 다 마쳐야 한다.²⁶⁹ 목사는 상담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에 충분히 성숙하고 지혜가 있으며 준비가 됐는지를 살핀다.
- d. 목사가 상담 후, 이 결혼이 주법과 성경, 그리고 ARPC Standard(헌법) 이 말하는 기준에 비추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목사는 결혼집례를 하지 말아야 한다.
- e. 기독교결혼예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볼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규칙과 본 모범예배안내에서 설명하는 기준을 따라 행한다. 모든 예배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예식절차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사용하는 음악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음악이라야 한다. 결혼예식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 목사와 당회의 지도하에 행해야 한다.²⁷⁰
- f. 기독교결혼예식 순서에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새로운 삶을 향하는 남녀를 위한 기도도 있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에 대한 성경 가르침에 따라 서약을 해야 한다.²⁷¹ 결혼반지를 교환하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준다. 이제 이들 앞에 놓인, 이들이 받고 책임질 특혜와 의무에 대해 권면사를 한다. 목사는 앞에 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정하심과 주법에 따라

268 고전 7:39

269 롬 13:1-7, 벧전 2:13-17

270 정치 6.8.L

271 창 2:24-25; 신 24:1-4; 말 2:10-16; 마 5:31-22, 19:3-12
 눅 16:18; 엡 5:22-33; 골 3:18-19; 벧전 3:1-7;
 신앙고백 22장 과 24장; 예배모범안내 V.C.1

결혼으로 하나 됐음을 선포한다. 축도로 결혼예식을 마친다.

- g. 목사는 결혼에 대한 주법을 따라 예식을 집행하고 결혼신고를 하도록 한다. 목사는 교회의 결혼기록부에 그 이름을 기록 보관하게 한다.

6. 장례 및 추모예배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²⁷²*

- a. 죽음을 맞이하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신다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다. 죽음으로 이별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주고,²⁷³ 보살피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예배는 목사가 인도하고 목사와 당회의 지도하에 하도록 한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별하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가장 좋으나, 형편에 따라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다.
- b. 장례예배는 고인의 생애와 환경, 유족, 교인들, 주변관계를 살핀 후, 정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²⁷⁴ 우는 것을 보시며,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애도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⁷⁵
- c.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한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²⁷⁶ 믿는 사람들이 거할 거소를 준비하시기 위해 가셨으며, 다시 오시어 믿는

272 시 116:15

273 시 23

274 요 11:35

275 롬 12:15, 살전 4:13

276 고전 15:54-57, 딤후 1:8-10

사람들을 인도하시어, 주님께신 곳에서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²⁷⁷ 믿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며,²⁷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복된 날을 기다리다, 그 날이 되면 무덤에서 자던 모두가 인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날 믿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²⁷⁹

- d. 적절한 성경말씀을 택해 예배하며, 감사, 중보,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한다. 고인의 명예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며, 고인 마다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택에 대한 감사와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예배의 초점은 항상 애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중보의 기도나 설교는 고인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찬양이나 음악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것이라야 한다.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중, 관은 뚜껑을 닫아 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하는 장지(하관)예배가 없는 경우, 축도함으로서 장례예식을 마친다.
- e. 장지(하관)예배는 성경말씀과 기도 가운데 진행하며, 축도로 장례예식을 마친다.

7. 안수 및 임직예식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²⁸⁰

- a.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 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²⁸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이 약속

²⁷⁷ 요 14:2-3

²⁷⁸ 눅 23:42-43, 고후 5:8

²⁷⁹ 요 5:25-29

²⁸⁰ 행 6:6

²⁸¹ 정치 1.2

하신 성령²⁸²을 받으신, 그리스께서 당신의 교회에 선물(은사)를 주시어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²⁸³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통하여 장로와 집사를 따로 세워 기도하고 안수하여²⁸⁶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²⁸⁴ 집사는 교회를 섬기도록²⁸⁵ 하셨다.

- b. 안수는 그 권한을 가진²⁸⁷ 교회치리회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도록 사람을 따로 세우는 엄숙한 행위이다. 목사 안수는 노회가 행한다.²⁸⁸ 교회의 치리장로와 집사의 안수는 통상 시교회의 당회가 하지만,²⁸⁹ 특별한 경우는 노회가 한다.²⁹⁰
- c. 임직은 선출되고 규정에 따라 안수받은 사람을 직분에 임명하는 엄숙한 행위이다. 같은 직분을 위해 과거에 안수받았던 사람은 다시 안수받지 않는다.²⁹¹ 직분을 위해 받은 안수는 본인이 원하여 물러나거나²⁹² 징계처분에²⁹³ 의해 면직 당하지 않는 한 평생직분이다.
- d. 교회직분을 위한 안수와 임직은 공예배에서 행해져야 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당 치리회가 주관해야 한다. 안수 받는 직분자는 정치(FOG)에 기록된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며, 교단의 교리, 정치, 권징조례, 예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²⁹⁴ 과거에 같은 직분으로 안수 받았던 사람은 재서약 하고 임직을 받는다. ²⁹⁵

282 행 2:33
 283 엡 4:11
 284 행 14:23; 빌 1:1; 딤후전 3:1-7,5:17; 딤후 1:5-9
 285 행 6:1-6, 빌 1:1, 딤후전 3:8-13
 286 행 6:6; 딤후전 4:14, 5:22
 287 정치 7장
 288 정치 10.3.K
 289 정치 6.8.G
 290
 291 정치 8.23
 292 권징조례 8장.A.3
 293 정치 8.4
 294 정치 8.17
 295 과거에 안수 받은 사람의 재서약,
 목사:정치 9.40,
 장로와 집사 : 정치 8.23 (5번부터 7번까지, 질문 및 서약)

- e. 지 교회의 모든 안수와 직분임직 예배시, 모든 교인들에게 이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를 물어야 하며,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²⁹⁶ 본 교단의 헌법(Standard of the ARPC)을 따라, 사랑 가운데 직분자들에게 합당한 존경, 순종, 격려로서 협력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²⁹⁷
- f. 모든 질문에 동의하며 대답한 후, 목사들과 당회의 장로들이 안수 받는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동안 그리고 안수 기도²⁹⁸ 하는 동안, 안수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 기도 후에는, 안수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했듯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도한다.²⁹⁹
- g. 안수/임직행사가 끝나면, 인도하는 목사는 정치(FOG)³⁰⁰에 기재 된 선언문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이 이들이 부름 받은 성스러운 직분에 합당한 안수를 받고 임직됐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 h. 주님께 대한 사명, 서로 간에 대한 사명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해 임직자들에게 권면한다.³⁰¹

8. 특정사역 위임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말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³⁰²

- a. 특정사역 위임은 교회직분자로 안수하는 것과는 달리,

296 고전
 297 정치(FOG) 8.18
 298 정치(FOG) 7, 8.17.(5), 8.19
 299 고전 13:13
 300 정치(FOG) 8.20(장로와 집사를 위해);
 정치(FOG) 9.33, 9.36(목사를 위해)
 301 딤후 4:-15, 정치(FOG) 8.20,9.43
 302 고후 8:19

특정한 사역을 위해, 어떤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다.³⁰³
이 사역은 선교사 사역, 교회자문, 찬양책임자, 기독교교육사
역, 여성교인담당, 자녀교육 사역과 같이 계속적인 사역일
수도 있고, 단기선교사 파송처럼 단기사역일 수도 있다.

- b. 특정사역 위임식은 예배 중에 할 수 있다. 사역을 위임 받
는 사람에게 기도와 권면을 한다.

* * * * *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
이니라.³⁰⁴*

303 고전 16:3 과 고후8:23에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음.

304 히 12:28-29

부 록

개혁주의 예배 견본

주 : 아래 기록된 예배순서는 칼빈 때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역사적인 견본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ARPC 총회가 승인한 완전한 예배순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들 중, 총회가 승인한 것은 없다.

John Calvin's Form of Church Prayers,
1540s Strausbourg(S)/Geneva (G)*

John Knox's The Form of Prayers,
1556**

Scripture Sentence	Confession of Sin
Confession of Sin	Prayer of Pardon
Scripture: Words of Assurance(S)	Metrical Psalm
Absolution of Sin (S)	Prayer for Illumination
Decalogue (S)	Scripture Reading
Prayer for Illumination	Sermon
Scripture Reading	[Collection of Alms]
Sermon	Thanksgiving and Intercession
Pastoral Prayer including long paraphrase of the Lord's Prayer	The Lord's Prayer
The Apostles' Creed sung while elements prepared	The Apostles' Creed
Words of Institution	Offeratory—elements prepared while singing metrical Psalm
Exhortation to worthy participation	Word's Institution
	Exhortation to worthy participation
Prayer of Consecration and Thanksgiving	Prayer of Consecration
The Minister partakes, then distributes	Adoration
The Communion at the table while singing metrical Psalm or reading Scripture	Thanksgiving for creation/ redemption
Post-Communion Thanksgiving	Anamnesis(remembrance)
Metrical Nunc Dimittis (S)	Doxology
Benediction	The Minister partakes, then distributes
	The Communion around the table while reading Scripture ("the Passion")
	Post-Communion Thanksgiving
	Metrical Psalm 103
	Benediction

*성찬식을 매주 행하지 않았다.

**성찬식을 자주 행하지 않았다.

부 록

Westminster 의 공예배 안내,
1644*¹

예배로의 부름
개회기도: 경배와 축복을 위해

구약성경 봉독
신약성경 봉독
운문시편
고백과 간구의 기도
설교
목회기도
주기도문
운문시편
권면, 경고, 초청

Words of Institution.a
헌신과 감사의 기도

목사가 떡을 떼고 분병

성찬(테이블에서)
성찬 후 권면
성찬 후 감사
구제 헌금
축도

* 성찬식을 매주 행하지 않았다.

The Book of Common Worship,
1946, "First Order"**¹

예배로의 부름
경배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
시편(연호, 봉독, 찬송)
첫 번째 성경봉독
찬송, 찬양
두 번째, 성경봉독
사도신경(니케아신조)
찬송, 찬양
감사기도 등
주기도문
봉헌
짧은 찬가, 화답 혹은
헌신의 기도
찬송, 찬가
설교
찬송
축도

**5가지 표준예배 순서 모두 성찬
예식이 아니다.

¹. 이 예배와 이전에 언급한 2예배
참조/ Bard Thompson, e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Augustine
Fortress Publishers, 1980) and
William D. Maxwell,

¹. *The Book of Common*
Worship (The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46).

a. Words of Institution

주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

“분병” : “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분잔” : “이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니라”

부 록

The Worshipbook, 1970*¹

예배로의 부름
죄의 고백
죄 사함의 선포
찬가(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Prayer for Illumination (말씀을
듣기 전에 잘 알기를 간구하는
기도문)
구약 가르침
시편, 찬송, 찬가
신약 가르침
설교
사도신경
합심기도
평안
봉헌
찬송. 찬가
성만찬으로의 초청
감사드림
Words of Institution
목사가 떡을 떼고, 분병

성찬(교인들의 찬송 속에)/
시편 혹은 찬양
성찬 후 감사드림
찬송
해산/격려
축도

* Order with Communion is the
first order given

¹ The Worshipbook
(Westminster
Press, 1970).

The Book of Common Worship
1993**¹

모이기
예배로의 부름
Prayer of the Day
찬송 경배

죄의 고백
죄 사함의 선포
평안
찬가, 시편, 찬송
Prayer for Illumination
첫 번째 성경봉독
시편
두 번째 성경봉독
찬가, 찬송, 시편
복음 봉독
설교
초청
신앙확인
[찬송 혹은 Concerns of the
Church]
Prayer of the People
[평안]
봉헌
성만찬으로 초청
감사드림
Words of Institution
떡을 떼어 분병, 분잔
성만찬(교인들이 시편, 찬송, 성경
봉독,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 후, 감사드림
찬송, 찬가, 시편
해산/격려
축도

**Standard service is a
communion service

¹ The Book of Common
Worship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